

인공 족관절 치환술후 지속되는 피부 누공을 가진 73세 여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순혁 · 김학준 · 경봉수

73세 여자로 5개월전 인공 족관절 치환술 후 발생한 피부누공(cutaneous fistula)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5개월 전(2010년 7월) 개인 병원에서 인공 족관절 치환술(Total ankle arthroplasty) 시행받았으며 2주 뒤 봉합사 제거 후 관절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수술 창흔에 일부 붕괴(disruption) 및 지속적인 장액성 분비물(serous discharge)이 지속되어 4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차례 재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봉합사 제거 1주일 후부터 수술 창흔 근위부에 장액성 분비물이 지속되는 피부누공이 재발하여, 이에 대해 추가로 1달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수술 창흔의 근위부 중간에 약 0.5cm 의 피부 결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액성 분비물이 지속되었고, 주변의 피부는 잦은 수술 및 염증 등으로 인해 붉게 변색(purplish discoloration) 되었으며 및 축진상 위축(atrophic), 경화(indurtaion)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무슨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